

트럼프-아소 前일본 총리와 회동...북한·중국 문제 논의

日총리, 바이든 만난지 10여일 뒤 여당 2인자 보낸 '보험 들기' 트럼프, 재판 시달리는 와중에 성의 보여...故아베 전총리 회상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자리를 확보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을 만나기 위해 미국을 찾은 아소 다로 전 일본 총리와 23일(현지시간) 만나 미일 관계와 북한·중국 문제 등을 논의했다. 외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일본 집권 자민당 부총재를 맡고 있는 아소 전 총리와 이날 뉴욕 트럼프 프타워에서 만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트럼프타워 입구에서 아소 전 총리를 영접한 뒤 "우리는 서로 좋아한다"며 "일본과 미국, 그리고 많은 다른 일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그를 만나 영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아소 전 총리에 대해 "일본과 이 밖에서 매우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추어올렸다.

이어 "매우 귀한 친구를 통해 알게 된 사람"이라 "맛다. 신조, 우리는 신조를

사랑한다"며 고(故) 아베 신조 전 총리를 회상했다.

아소 전 총리는 트럼프와 개인적 친분을 쌓았던 아베가 총리로 재임 때 부총리를 역임하면서 정상회담에 배석했고, 두 정상의 골프 회동에도 동참했기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도 안면이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신조는 내 훌륭한 친구"라며 "그는 정말로 훌륭한 인물이며, 우리가 모두 존경하는 사람이다. 나는 그가 그립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약한 시간가량 회동 뒤 낸 성명에서 "두 사람은 미일 동맹이 인도-태평양에서 양국의 물리적·경제적 안보와 안정에 지속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과 북한의 도전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본의 방위비 증액도 높이 평가했다"고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트럼프타워에서 아소 다로 전 일본 총리와 만나고 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이 커지면서 그와 접촉면을 넓히려는 해외 유력 인사들의 방문이 잇따르고 있다. /AP=연합뉴스

덧붙였다. 이번 회동은 일본 기사다 정권 입장에서 11월 미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

통령이 승리하는 경우에 대비한 '보험 들기'로 볼 수 있다. 최근 기사다 후미오 총리가 국빈 자

격으로 미국을 찾아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10일) 등으로 양국 관계를 다진 상황에서 행정부(내각)에 몸담

고 있지 않은 당의 2인자를 내세워 백악관 복귀 가능성이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 쪽에도 줄을 대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도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으로 연일 법원에 출석하느라 심신이 지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시간을 내 아소 전 총리를 만나는 성의를 보였다.

아소 전 총리는 지난 1월에도 뉴욕을 찾은 등 끝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당시에는 공화당 대선 경선 일정 때문에 면담은 성사되지 않았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이날 중의원 위무위원회에서 두 사람의 회동과 관련해 "의원 활동으로 정부와 관여하고 있지 않다. 개인 입장의 활동에 대해 코멘트하는 것은 삼가겠다"고 말했다고 현지 방송 TBS가 보도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바이든 행정부에 서 이번 회동에 대해 불쾌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의원 질문에 "외무상으로 답할 입장이 아니다"고 대답했다. /연합뉴스

대마초 합법화 독일... '불면증 코스프레' 급증

'소비는 가능, 판매는 금지'...의료용 대마초에 애연가 몰려

"단돈 1유로에 처방전 받고 대마초를."

독일 원격진료업체 A사는 홈페이지에 1유로(약 1천470원)짜리 동전 이미지와 함께 대마초 처방전 홍보 문구를 걸었다. '2024년 4월1일부터 환자 수백 만명에게 대마초를 이용한 치료가 가능해졌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23일(현지시간) 회원으로 가입하고 처방전 발급을 시도해봤다. 18개 항목의 문진표를 작성하는 데는 5분도 걸리지 않았다. 6개월 넘게 불면증에 시달렸고 대마초 문제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고 적었다. 곧바로 '의사가 대마초를 처방해줄 가능성이 커 보이나 상담을 예약하라'는 인증 이메일이 왔다.

그러나 상담 예약 단계에서 가로막혔다. 전국 7개 도시에서 대면 상담은 물론 온라인 화상 진료도 가능하지만 주말을 포함해 6월말까지 예약이 꽉 차 있었다.

이달 1일부터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

화한 독일에서 '가짜' 불면증 환자가 늘고 있다. 대마초가 마약류에서 제외되면서 의료용 대마초도 폭넓게 허용됐기 때문이다.

합법화 이전에는 만성질환에 다른 치료법을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경우에만 대마초 처방이 허용됐다. 그러나 이제 불면증 치료제나 진통제·항우울제로도 별다른 제한 없이 처방전을 발급 받을 수 있다.

프랑크푸르트에 본사를 둔 A사는 이달 들어 회원 수가 10배 늘었고 지난 달 말 부활절 연휴에는 홈페이지 서버가 마비되기도 했다고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SZ)에 전했다.

의료용 대마초를 전문으로 하는 온라인 약국 C사는 '주문이 폭주해 4월13일부터 전자 처방전을 받지 않는다'고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대마초공급약국 협회(VCA)는 합법화 이후 처리하는 대마초 처방전이 5배 늘었고 90% 정도는 원격으로 발급받은 처방전이라고



대마초 합법화를 지지하는 독일 베를린 시민.

밝혔다. 원격진료에 환자가 몰리는 건 합법화 이후에도 정작 적법하게 대마초를 구할 방법은 마땅치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독일 정부는 대마초를 암시장에서 양지로 끌어올리겠다고 기호용 대마초 판매는 계속 금지하고 있다. 대마초를 피우려면 직접 재배하거나 7월1일부터 운영되는 대마초클럽을 통해 구매하

는. 대마초클럽들이 재배시설을 갖추는 등 준비를 거쳐 회원에게 대마초를 공급하려면 몇 달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의료용 대마초에 애연가가 몰리자 실제 치료 목적으로 대마초가 필요한 환자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 이들은 대마초 치료에서 비롯한 사회적 낙인을 벗기 위해 합법화를 지지했지만 기대와 정반대 상황이 됐다고 호소한다. /연합뉴스

플라톤 무덤 위치, AI로 찾아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이 묻힌 정확한 장소가 고대 로마의 파피루스 두루마리 문서를 통해 확인됐다.

이탈리아 피사대의 그라치아노 라노키아 파피루스학 교수는 이날 나폴리 국립도서관에서 국립연구위원회와 함께 수행한 '그리스 학교' 연구 프로젝트의 중간 결과를 발표하면서 플라톤의 정확한 무덤 위치가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 두루마리는 서기 79년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폼페이와 함께 사라져 버

린 나폴리만의 고대 로마 도시 헤르쿨라네움에서 발견된 1천800여개의 파피루스 문서를 말한다.

연구자들의 오랜 고민이자 숙원을 해결한 건 인공지능(AI)이었다.

라노키아 교수가 주도한 연구팀은 이번엔 AI를 활용한 결과 1천개의 새로운 단어를 발견했다며 이는 30년 전 마지막으로 해독했을 때보다 30% 더 많은 단어를 찾아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이란 대통령 "이스라엘, 또 공격하면 정권 남아나지 않을 것"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자국 영토를 또 공격할 경우 "정권이 남아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파키스탄을 방문 중인 라이시 대통령은 각계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시온주의자 정권(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실수를 저질러 이란의 신성한 땅을 공격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달 초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 건물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을 언급하며 이란이 지난 13일 전례 없는 공격으로 이스라엘을 처벌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1일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 폭격에 대한 보복으로 당시 이스라엘군은 전투기와 다층 방공망을 동원하고 미국 등 우방의 도움을 받아 이란 무기의 99%를 요격해 거의 피해가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국	• 중앙지국 222-8171	• 상주지국 453-2554	• 유동지국 222-8171	• 오치지국 261-9461
	• 산수지국 224-4188	• 광천지국 374-2120	• 운암지국 529-3548	• 문흥지국 261-9462
	• 학운지국 673-6836	• 진월지국 676-2726	• 용봉지국 261-1503	• 일곡지국 573-3200
	• 화정지국 372-9140	• 봉선지국 673-6836	• 신가지국 954-1420	• 첨단지국 971-7374
	• 금호지국 376-7153	• 백운지국 673-0123	• 양산지국 574-3745	• 치평지국 371-9584
• 풍암지국 603-0311	• 두암지국 266-1920	• 하남지국 951-9954	• 수왕지국 955-0451	
• 노대지국 674-3581	• 농성지국 362-4102	• 운남지국 952-1687	• 광산지국 944-0993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나주지사 061)335-0005	• 보성지사 061)852-6644	• 무안지사 061)453-3645
	• 동곡포지사 061)278-0740	• 광양지사 061)793-6800	• 화순지사 061)373-7795	• 함평지사 061)322-0882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구례지사 061)782-4696	• 장흥지사 061)863-6800	• 영광지사 061)353-5133
	• 신안지사 061)980-8300	• 담양지사 061)383-5566	• 강진지사 061)432-8899	• 장성지사 061)394-3636
	• 순천지사 061)746-1600	• 곡성지사 061)362-5746	• 해남지사 061)535-5849	• 완도지사 061)555-0134
• 여수지사 061)651-6433	• 고흥지사 061)832-6290	• 영암지사 061)473-7151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